

1. 두 개의 정부 (1949-1990)

①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정부) 수립(Bundesrepublik Deutschland -> BRD, 임시수도: 본 - **법적으로는 여전히 베를린**)

1948년: 미국, 영국, 프랑스 관할 지역 경제 통합

1949년 5월 23일: 서방연합국 지역에서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 서독정부 수립 - 초대 대통령: 콘라트 아데나우어

②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정부) 수립(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DDR, 수도: 베를린)

1955년 소련 - 동독을 정식 독립국으로 인정

2. 문학으로 보는 동독의 행보:

① 1950-61년 공산주의 국가 건설 단계: 건설 문학(주인공-노동자)

동독 문학은 초창기에 매우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반 파시즘 경향이였다. 많은 젊은 작가들이 파시즘에 반하여 공산주의에 열광하였다. 동독 문학은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일반인들에게 공산주의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자유롭고 독자적인 문학 생산과 수용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작가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대해서 썼는지,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 들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책 서문에 밝혀야만 했다.

② 1961-71년 공산주의 국가 도달 단계: 도달/도착 문학

동 베를린과 서 베를린 사이에 세워진 장벽은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동독 작가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또한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도착 문학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산주의 체제와 갈등을 겪는 젊은 영웅이 차차 공산주의로 전향하고 마침내 공산주의자로 거듭난다는 내용이다. 도착 문학의 대표적인 예로는 브리기테 라이만 Brigitte Reimann의 소설, 『일상에서의 도착 Ankunft im Alltag』 (1961) 이 있다. 도착 소설은 공산주의자로서의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데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 공산주의적인 생산 방식의 발전,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의 갈등 등이 다루어진다.

* 비터펠트 노선 Bitterfelder Weg 1959, 1964

- 공산주의 국가 건설 도구로 예술 사용, 부르주아 계층만 향유하던 예술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도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술 민주화/평준화를 달성하려 함

- 당시기장 발터 울브리히트 Walter Ulbricht (1949-1971집권): „국가와 경제에서 독일 민주 공화국의 노동자 계급이 주인이다. 이제 노동자가 문화의 정점을 향하여 돌진하고 점령하여야만 한다.“ „존재하고 있는 예술과 삶의 분리“, „예술가와 민중의 괴리“를 극복하자! -> 특히 예술가, 작가들은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자들이 직접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펜을 들어라 동지여! 사회주의 독일 민족문화는 네가 필요하다!“

- 많은 예술인들(크리스타 볼프 Christa Wolf, 슈테판 하임 Stefan Heim 등)의 반대 움직임: 반 예술의 도구화,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회의. 예) Galerie Konkret, Berlin 1960 <- 아무나 쓰는 글/예술에 대한 반발

* 신 경제체제 도입(1963)국민경제의 효율화를 위한 경제제도의 현대적, 합리적 운용을 표방. 목표는 과학적인 관리 체제를 바탕으로 기술, 경제적 효용성과 생산성을 고양해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자(공산주의 생산 및 분배 체계 한계 체감)!

노동자 중심 생산 체제 -> 계획 수립자 및 지도자들의 역할 강화 -> 계획 자본주의, 신 자본주의 적 경향(이윤, 가격, 판매고, 수익성 등 중시)

- 신 경제체제가 문학에 끼친 영향: 경제 계획 체제, 관리 체제 -> 문화 예술 분야: 경제적인 예술 작품 생산 요구

-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 계층인 노동자 묘사 ->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모범적인 계획자와 관리자가 주인공이 됨

③ 1971-90년 사회주의 위기 단계

작가들의 저항이 본격화/가시화 되었다. 작가들은 당의 목적론적 도식에 맞는 작품 집필 거부하였으며, 공동체에서 나/개인으로 관심사 이동하였다 -> 소재: 현실 속 자기 체험,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요구와의 대립 및 해결책, 개인의 행복. 양상: 모순과 대립의 조화로운 해소 부재, 균열과 좌절을 있는 그대로 묘사

작곡가 볼프 비어만은 본격적으로 동독 정부 비판하기 시작하였는데, 때문에 그의 공연은 자주 금지 당하였다. 1976년에 비어만이 쾰른에서 열린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 서독에 왔으나, 공연 후 동독 재 입국이 거부당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작가들이 공식적으로 그의 추방철회를 촉구하였으나 효과는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작

가들이 동독을 떠나거나(사라 키르쉬 Sarah Kirsch, 귄터 쿠너트 Günter Kunert), 동독으로부터 추방(볼프 비어만 Wolf Biermann)당하거나, 동독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동독 작가 협회로부터 제명 당하였다.

★ 볼프 비어만 Wolf Biermann(1936-): 독일의 시인이며, 가수. 함부르크 출신으로 아버지는 유대인이며 공산주의자로 나치에게 체포되어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당하였다. 어머니에 의해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그는 17살 때에 홀로 동독으로 이주한다.

- 공산주의에 이상을 품고 동독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상과 달리 활동하는 동독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다. 반체제 예술가로 적극적으로 동독 공산당 정부의 폐해를 폭로/비판 비판하던 그는 결국 1976년 서독 쾰른 지역에서의 콘서트를 위해 서독으로 넘어간 후 동독으로의 귀국이 거부당하고, 동독 시민권도 박탈당하고 만다. 여러 차례 동독 정부에 항의하고 동독으로의 귀국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거부당하였다.

보다 나은 시절을 기다리지 말라

볼프 비어만

많은 사람들이 씁쓸하게 하는 말을 나는 듣는다

<사회주의 - 거 멋지고 조울지

하지만 여기 이곳 우리들 머리에 씌워진 것

그건 틀린 모자야!>

많은 사람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모습을 나는 본다

하지만 주먹은 외투 호주머니 깊숙한 속에 있다

입술 위로는 차가운 술잔 기울여 쏟아 붓기

그리고 가슴들 속에는 재.

그대 보다 나은 시절을 기다린다면

그대 용기 품고 기다린다면

날이면 날마다 강가에 나가

강물이 다 흘러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바보와 같다

[...]

보다 나은 시절을 기다리지 말라

그대들 용기 품고 기다리지 말라

날이면 날마다

강물이 다 흘러버릴 때까지

강둑에서 기다리는 바보와 같다

하지만 강물은 영원히 흐르는데

하지만 강물은 영원히 흐르는데

3. 동독 국가보안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MfS 또는 Stasi)

1950년에 설립되어 1990년에 해체된 동독의 정보 기관. MfS 또는 Stasi(Staatssicherheitsdienst의 약칭)라고 불렸다. 슈타지는 비밀정보기관(Aufklärung), 정치비밀경찰기관(Abwehr), 사법조사기관(Strafverfolgung)의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기관이었으며, 외국첩보기관이 동독 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동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다른 국가 및 비 국가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의 정책 및 국가 질서에 반하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 밖에, 동독 주민들이 해외로 이주/탈주하지 못하도록 하며, 외화 등 내수에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하는 임무도 맡았다.

① 1950-1961년: 동독 설립 - 베를린 장벽 건설 이전 시기

일반 시민들을 폭력을 동원하여 감시. 고무 방망이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가 하면, 시민들을 감시하고, 체포, 구금/감금, 고문함. 슈타지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인 사람은 직장생활 및 은밀한 사생활까지 슈타지에 털어놓아야 했다. 이 시기 슈타지의 목표는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움직임들을 미리 파악하여 이를 방지하는 것. 그러나 이 시기 문학, 예술 내지 대중 매체와 같은 문화 영역은 감시와 검열의 대상이 아니었다.

② 1961-1976년: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 동서 냉전 화해 분위기 시작 이전 시기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동독의 통치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슈타지의 역할도 변화하였다. 동독 주민들은 이제 더는 서독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사회주의통일당의 권력이 더욱 강해졌다. 슈타지는 동독의 체제를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하여 동독 주민들을 이전보다 더욱 더 감시하고 더욱 빈번하게 구금/감금 및 위협하기에 이른다.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당과 정권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슈타지는 이제 문화 영역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신문, 서적 등과 같은 출판물, 공연 예술 등과 같은 대중 예술도 검열 및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방송국, 출판사, 신문사, 극장도 슈타지의 통제를 받았으며, 작가와 기자들도 슈타지의 감시 하에 활동하였다.

③ 1976-1989년: 동서 냉전 체제 완화 시작 - 베를린 장벽 붕괴

동서 냉전체제가 완화된기 시작하면서, 동독으로 외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독 현지에서 취재한 내용을 해외로 반출 및 보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슈타지를 통한 당의 폭력적인 통치 방식이 해외로 보도될 위험이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슈타지는 이전의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을 고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슈타지는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통제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방식, 이른바 ‘심리적 테러(Zersetzung)’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동독 주민과 사회를 통제하였다.

* ‘심리적 테러’의 방식

전화감청, 감청장치설치, 비디오 감시장치설치, 비밀 또는 공개 촬영, 수신 및 발신 서신과 우편물 전면 검사, 출입국 및 국경왕래 인사에 대한 감시, 인민경찰에 의한 여권발급 감시, 감시대상의 인척, 친구, 방문자 감시, 비공식 요원을 통한 주거지 또는 직장 비밀수색 등. 이러한 방식으로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색출한 후에는 체포, 감금하고 모진 고문을 가하였다. 고문 방식으로는 방사선 노출, 독극물 실험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감시 대상자의 자살을 유도하거나, 협박, 유괴, 살해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영역에서는 슈타지에 적대적이었던 시민운동가들의 투쟁으로 인해 그 활동이 어느 정도 축소되었다.

* 참고문헌

임종대 외: 독일이야기 2, 서울: 거름 2000

최연숙: 독일시선집, 서울: 신아사, 2013

카르스텐 뎡멜, 멜라니 피펜슈나이더 지음, 김영운 역, <슈타지: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나?>, 통일연구원, 2010

후베르투스 크나베 지음, 김주일 역, <슈타지 문서의 비밀>, 월간조선사, 2004

황운영, 김미경: 독일문화 오디세이, 서울: 글로벌콘텐츠, 2016